

# 세밀하고 정교한 한국미술 정수 한 자리에

## 삼성미술관 리움 '세밀가귀-한국미술의 품격' 전 9월 13일까지

최고의 주조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불보살상과 극도의 세밀한 선으로 표현된 고려불화는 정교한 우리 미술품의 정점이 아닐 수 없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세밀함'과 '정교함'을 통해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세밀가귀(細密可貴)-한국미술의 품격' 전시 9월 1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미술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불교미술 금속공예, 나전, 회화 등 전 분야의 국보 21점과 보물 26점 등 140여점으로 구성됐다.

어렵게 서울나들이를 한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 금동 대향로' (국보 287호)를 비롯해, 동국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간송미술관, 호림박물관 등 국내 19개 주요 기관의 대표 작품과 함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영국미술관, 암스테르담국립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 등 해외의 21개 소장처에서 대여한 국보급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문양, 형태, 묘 묘사로 나뉘어 대중들을 찾아간다. '문양-정교함의 극치, 화려함의 정수'에서는 전통 공예품 속에 나타난 여러 장식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금속공예품을 비롯해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삼각형자 등의 장식은 물론, '천하제일'이라 칭송 받던 비석과 그 안에 숨겨진 문양을 보여주는 비석청자 등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통해 공예 작품에 나타나는 정교함과 화려함의 원류를 살펴본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세밀가귀-한국미술의 품격' 전시 9월 1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 왼쪽은 금동대세지보살 좌상, 오른쪽은 백제 금동 대향로.



**치밀한 형태미 '금동 대세지보살'**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고려불화'**  
**조선 최고의 주조품 '운몽문 운판'**  
**각 시대 대표 작품 새롭게 조명**

'形 형태-손으로 빚어낸 섬세한 아름다움'에서는 장인의 손끝으로 빚어낸 정묘한 형태의 세밀함을 찾아볼 수 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주조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치밀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금속공예품과 불보살상을 통해 형태의 섬려함을 보여준다.

'묘 묘사-붓으로 이룬 세밀함'에서는 붓을 통해 표현한 섬세함의 다채로운 모습을 조명했다.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서 예술로 승화된 고려불화에 나타난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문양, 극도로 세밀한 선으로 묘사한 사경의 선(線), 자기의 표면을 화폭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철화·청화백자, 사실적인 묘사와 정교하고 치밀한 필체가 잘 나타나는 회화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어 붓이라는 도구로 만들어낸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금동 대세지보살 좌상' (호림박물관, 보물 1047호)은 가느다란 허리와 섬려한 손발의 표현, 전신에

드러워진 다채로운 장신구 등은 당시 불보살상에 반영된 시대적 미감과 제작 기법을 잘 보여준다.

'갑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국보 235호) 등의 고려불화 역시 정교하고도 사실적 표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리움 미술관은 "극도로 화려하고 정밀한 고려 불화들은 고려시대의 화공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불화의 세부는 화공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변상도와 사경에서 보이는 극세필은 중국에서조차 부러워하며 화공을 요청했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287호)는 백제 미술의 뛰어난 조형성뿐만 아니라 최고 경지에 도달한 주조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사비사지 출토 '금강령' (국립청주박물관)이나, 조선시대 주조품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청동 '운몽문 운판' 등을 통해 문양뿐만 아니라 형태의 정교함과 세밀함 그리고 화려함의 추구가 여러 시대를 거쳐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 17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정도로 희귀한 고려 나전 8점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나전을 조망하고, '청자진사 연화문 표형주자'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칠보산도병'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동경계회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을 국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전시한다. (02)2014-6901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고정된 실체 없는 불상 예술로 승화

## 김영진 개인전 갤러리 신라서 7월 26일까지

불상 시리즈의 신작을 소개하는 김영진 작가의 개인전이 7월 26일까지 대구 갤러리 신라에서 열린다.

이번에 소개되는 불상은 주물로 찍혀 나온 조형물이다. 미술작업을 위해 개금 재료를 찾아다니다 불상제작소를 방문하게 된 작가는 그곳에서 불상 조형을 배웠다고 한다. 김 작가는 "4개월 동안 불상 제작을 배웠는데 매우 재미있었다. 이후 불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종종 제작하게 되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기에 이를 통해 불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의 불상도 그렇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불상도 일정한 틀을 가진 형태로 굳건하게 각인되어 있다. 작가는 여기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불상의 금도 금 위에 다양한 색상의 염료로 착색을 해 불상의 고정적인 틀을 깨버렸다. 어떤 건 형태 자체에 변형을 가해 부처님의 상호

(相好) 대신에 다른 형상이 올라와 있다. 상식적인 체계의 조형을 전복, 전향하는 행위를 통한 도발적인 조형작업이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공(工)의 아티스트에게 조형은 임무이자 의무다. 그러나 작가는 조형을 하면서 동시에 조형을 거부하고 파괴한다. 미술평론가 황인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깨부수고 조형을 만나면 조형을 깨부수고 금기가 나를 만나면 나도 깨부수다. 이런 상황무에야말로 작가를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그의 작품에 대해 평했다.

김영진 작가는 1946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1974년 양대평당전, 대구현대미술제, 1975년 서울현대미술제, 1976 부산현대미술제, 1979년 에펠드 서울, 1984 한국현대미술제(대만) 등 70~80년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대미술의 주요 단체전에 중심인물로 참여해왔다. (053)422-1628 정혜숙 기자



김영진 작가는 불상의 변형을 통해 예술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선화 그리기의 과정 책으로 출간

## 담원 김창배 화백 <한국 선화 화법> 출간

담원 김창배 화백이 선사화의 기법을 설명한 도서 <한국 선화 화법>을 내놓았다. 김 화백은 선 그리기를 비롯해 달마도, 다동의 화법 등은 물론 마음가짐 준비 자세 등에 대한 과정들을 책 속에 담았다.

김창배 화백은 선목화란 한마디로 수행을 통한 선(禪)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데 그림을 선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화가들도 불교 공부를 바탕으로 수행을 실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화는 형상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이 책에 선목화를 그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선(線) 그리기와 응운, 묵법, 운 필법, 기본필법과 붓의 전호(前豪)와 필심



(筆心) 등 개체의 표현에 대해 도판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또, 선화(禪畫)의 주역 달마와 선동(仙童) 그리기의 부분별

(눈, 눈썹, 코, 입, 손, 발 등) 형태 그리기, 선방(禪房) 용구 및 다구 그리기, 피사체와 개체의 표현 등의 화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 국박, 한국문화재 영문도록 전자책으로

## <통일신라조각> 시작으로 7권 선보일 예정

선덕대왕신종 석굴암사천왕상 등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영어 전자책으로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통일신라조각>(Sculptures of Unified Silla) 영문도록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해온 한국 문화재 영문도록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제까지 발간된 영문도록 전 7권이 모두 올해 전자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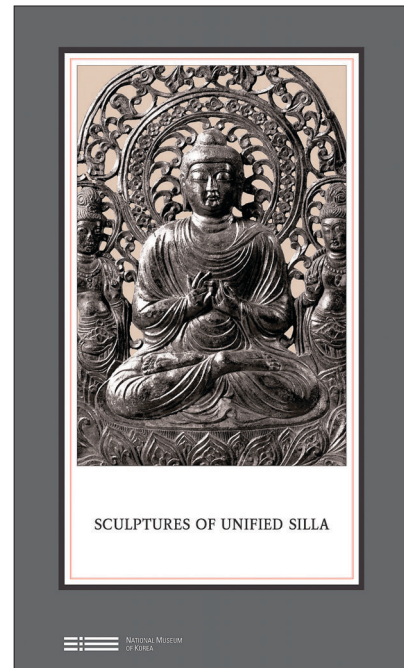
이번의 전자책 발간은, 인쇄물 형태의 영문도록을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및 학술기관에 무상 배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이 직접 전자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마존과 교보문고 등 국내외의 우수 전자책 상거래 시장에 한국 문화재 영문도록 전자책을 출시함으로써, 인류의 확산과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아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층을 창출하고

자한다"며 취지를 전한다.

금년 중으로 출간될 전자책은 <고려청자> <조선시대 청화백자> <조선시대 불화>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조선시대 조상화> <한국 나전칠기> 등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망라한 영문도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의 전자책 출판을 계기로, 한국 문화재의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과 수요층 확대를 위해 영문도록 콘텐츠 개발 및 발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통일신라조각> 영문도록 전자책 표지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했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불교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